



## “모두 한 보따리 안에 있다”

현장 스님이 말하는 ‘법정 스님 종교관’

어려서 부모를 잃고 방황하던 한 고등학생이 있었다. 학생은 담임선생님의 권유로 법정 스님의 <산방한담>을 읽고는 다음날 한담을 송광사 불일암으로 법정 스님을 만나러 달려갔다.

청년은 스님에게 물었다. “스님, 책을 밤에 썼어요? 낮에 썼어요? 마루에서 썼어요? 방에서 썼어요?”

법정 스님은 당돌한 질문을 던진 학생의 머리를 쥐어박으며 말했다. “차나 마시고 가져라.”

이번에는 법정 스님이 학생에게 물었다. “그래, 너는 커서 무엇이 되고 싶어요?”

“군인도 되고 싶고, 교수도 하고 싶습니다.”

법정 스님이 학생에게 말했다. “무엇이 되겠다고 어떻게 살지를 고민해라.”

스님과 학생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됐다. 할머니 뒷바라지만으로 어렵게 조선대 법학과에 진학했던 학생은 등록금이 없어 학업을 중단해야 했다. 법정 스님은 그런 그에게 “등록금 고지서를 광주 베토벤 음악감상실에 맡겨 놓으라”고 말했다.

그때부터 스님은 그가 졸업할 때까지 빠짐없이 등록금을 부쳐줬다. 법정 스님은 청년에게 “어려운 건

가 있으면 소개하라”고 해서 다른 친구 셋도 졸업 때까지 학비를 도왔다. 세월이 흘러 그들은 교수가 되고 의사가 됐지만 스님을 직접 뵈는 적은 없었다. 특히 법정 스님은 그와 친구들에게 도움 받은 사실을 입 밖에 내지 못하게 했다.

그는 법정 스님의 다비식을 모신 후에야 현장 스님에게 사연을 밝혔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목포 초당대 문현철 교수.

문 교수는 가톨릭 신자이다. 대학 다닐 때 가톨릭에 입문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영세를 받은 날 교통사고를 당해 2주 동안 사경을 헤매고 5개월을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문 교수는 퇴원하자마자 송광사 불일암을 찾았다. 홀쭉해진 그에게 법정 스님이 물었다.

“어디 아팠어?”

문 교수는 답했다. “하느님이 계시다면 저를 치인 차를 불잡아 주지 않고 영세 받은 날 교통사고를 내게 할 수 있습니까? 저도 스님처럼 불교를 믿고 싶습니다.”

법정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천주님은 그런 만화 같은 일을 하는 분이 아니다. 이런 아픔을 통해 네가 더욱 성숙해져 더 큰 시련도 이겨 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다.”

이러 스님은 “천주님의 사랑이나 부처님 자비나 모두 한보따리 안에 있는 것이니 따로 종교를 바꿀 생각은 하지 말라”고 타일렀다.

티베트박물관장 현장 스님은 법정 스님과 청년의 사연을 6월 3일 연세대 백암관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주최해 열린 ‘이웃종교의 갈등과 다름’ 주제의 학술대회에서 공개했다.

현장 스님은 주제 발표 ‘법정 스님이 바라본 이웃종교의 갈등과 다름’에서 “법정 스님의 다비식 날 불일암에 올랐다가 목주를 돌리며 기도하는 청년의 남성을 만났다. 그가 문 교수였다”고 말했다.

현장 스님은 “법정 스님은 불교라는 틀에 매이는 것을 거부했고, 수행자라는 상에 매이지도 않았다. 그러면서도 출가 수행자의 본분에서 벗어나지 않고 항상 처음 시작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던 선지식이었다”라고 회고했다.

스님은 “법정 스님은 자신의 말·글과 일치하는 삶을 살았고 체험하지 않고 깨닫지 않은 사실은 글로 쓰지 않았다”면서 “법정 스님이 남긴 글과 삶과 죽음의 모습, 종교교류의 흔적들이 스님이 가신 후에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구례 화엄사 북한 지원을 위한 통일쌀 모심기** 화엄사와 구례군 농민회, 여성농민회, 기아차 노동조합 광주지회 등으로 구성된 ‘통일쌀 공동경작단’은 5월 30일 화엄사 인근 논에서 ‘통일쌀 모내기’를 했다. 이날 6만여㎡에 심어준 벼는 가을에 추수해 북한으로 보낼 계획이다. 공동경작단은 2007년 조직되었으며, 매년 통일쌀을 경작하고 있다.

## 민추본 “6월은 평화 실현의 달”

창립 10주년 맞아 철책선 걷기·사진 공모전

남북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창립 10주년을 맞이한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명진, 이하 민추본)가 6월을 ‘한반도 평화 실현의 달’로 정하고 평화통일 순례, 사진공모전을 연다.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순례는 이번 달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연화사·개운사 신도들과 함께 접경지역인 강원도 고성 일대에서 평화통일 순례를 진행한다.

26일에는 강화해역 평화통일 올레길 걷기행사를 실시한다. 올레길 15km 중 10km에 해당하는 철책선을 따라 걷는다. 또 걷기행사를 마치고는 김포 통일전망대를 방문해 평화통일을 발원한다. 6월부터 두 달 여간 평화통일을 주제로 한 사진을 공모해 10월 전시회를 연다.

민추본은 창립 10주년에 즈음해 이외에도 남북이 공동으로 ‘평화’를 주제로 법회와 음악회 등의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남북관계

가 악화돼 보류하고 있다. 민추본 박재산 홍보계장은 “창립 10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준비 중이었지만, 남북관계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기원법회, 강연회, 음악회 등은 개최가 불투명하게 됐다”며 아쉬움을 표하고, “8~10월 중으로 지금의 위기 상황이 해소되면 평화통일기행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추본은 5월 31일 발표한 ‘대결과 전쟁을 반대하고 화해와 평화를 발원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남북은 한반도 전쟁과 경제위기를 불러오는 군사적 대결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추본은 성명에서 “지금 상황에서 군사적 충돌은 아무리 사소한 교전이라도 국지전으로,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곧 우리 민족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는 참담한 파국을 맞게 됨을 의미한다”고 우려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어

떤 누구도 전쟁의 참화를 바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민추본은 정부에 대해 “군사적 충돌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대북심리전 확성기 설치와 같은 자극적인 조치를 취소하고, 당국간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의 방법을 적극 모색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민추본은 또 “이전에는 위기상황에서도 당국 간 채널을 통해 상황관리가 가능했지만 현재는 모든 채널이 단절됐다”고 지적하고 “예기치 않은 장소와 상황에서 발생될 사소한 문제가 상호간 오해와 잘못된 신호로 인해 견집할 수 없는 상황으로 비화될 수 있다”며 위기상황의 수습을 촉구했다.

민추본은 조계종의 남북불교교류를 전담하는 기구로 “7천만 민족이 바라는 통일조국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한다”는 취지로 2000년 6월 8일 창립됐다.

이상연 기자 un82@buddhapia.com

## 전문대학원 설립 논의 조계종 교육원 세미나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웅)은 이달 중 4차례에 걸쳐 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교육원은 6월 1일 지방승가대학(강원) 중학인 정원에 미달되는 기관을 전문교육기관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에 따라 제방의 의견수렴을 위해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10일 선학전문대학원 △11일 출장전문대학원 △14일 초기불전전문대학원 △17일 한문불전전문대학원을 주제로 각 오후 2시에 열린다. 발표자와 토론자는 1일 현재 미정이다.

교육원 이석식 교육차장은 “각 전문대학별 세미나에 맞춰 해당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조동섭 기자

## 생명 살리자는 한 비구의 외침

문수 스님 소신... 4일 영결식

“이명박 정권은 4대강 사업을 즉각 중지·폐기하라”는 유서를 남기고 소신공양한 문수 스님의 영결식이 6월 4일 스님이 주석했던 경북 군위 지보사에서 봉행됐다. 4대강생명살림불교연대는 15일까지를 추모기간으로 정하고 국민추모제 등을 진행한다.

조계종 제10교구장으로 거행된 영결식에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 은혜사 주지 둔관 스님 등 200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조사에서 “문수 스님과 같은 훌륭한 수행자를 제자리에 머물 수 없도록 만든 시절

인연이 참으로 하수상하니 몸을 맡겨놓은 세 평 공간마저 버려야 했다”면서 “조계종도들은 스님께서서 공양 올리신 그 뜻을 헤아려 세상의 막힌 곳을 뚫어주고 갈등을 푸는 데 모든 지혜를 모으겠다. 세상의 온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은혜사 주지 둔관 스님은 영결사에서 “문수 스님이 사바인연을 버린 것은 항상 근면히 정진하라는 가르침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문수 스님은 “이명박 정권은 4대강 사업을 즉각 중지·폐기하라. 이명박 정권은 재벌과 부자가 아닌 서

민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5월 31일 오후 3시경 낙동강둑에서 소신(燒身)했다.

영결식에 앞서 지보사는 문수 스님의 유품을 공개했으며, 곁에 접힌 승복 옷도리와 흰 고무신, 파란색 작은 수첩과 필기구, 승려증과 10만원이 전부였다고 밝혔다.

문수 스님은 1986년 월정사에서 시현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1990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1998년 중암승가대 학생회장을 지낸 스님은 이후 통도사·두방사·해인사·묘관암사 선원에서 수선 안거했다. 2006~2009년 정도 대산사 주지를 역임했다.

관련기사 3편

조동섭 기자 · 손법천 대구지사장

▶14 선지식-법산 스님 ▶4 인터뷰-덕현 스님 ▶9 현장-다문화 합창제 ▶16 강의-향봉 스님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지등 승강장치 \_ 대구 여래사    연등 지등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C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용학사 극락전 영구위패

### 아름다운 등

※ 주름등 · 중등 주문 받습니다. (사찰명 인쇄)

칼라(보카시)연등    공단등    오색공단등    영가등    중등

‘동해 독도는 한국 땅’

신상품 찬덕 LED 전구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구요금: 98원/1kw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LED인등 LED전구

1. 내열 ABS 내열특성 : 연화점온도가 100-120℃로 우수한 내열특성을 가지고 있다. 연화점이란 (물질이 가열하여 변형되는 온도) 충격특성 : 내열성과, 내충격성 등의 물성 발란스가 우수하다.

2. 경제성 비교

종류	일반전구	찬덕 LED 전구
소비전력	10W	2W
효율	10 lm/w	50 lm/w
연간전기로	2146원	429원
수명보장		30,000시간

3. 기존 전구에 비해 잘 깨지지 않는 재질의 커버적용으로 파손의 위험이 적다.  
4. 발열이 적어 기존 전구처럼 뜨겁거나 다칠 염려가 없습니다.  
5. 전기가 절감 되고 교체하는 번거로움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 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